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어찌 의심하느냐!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진리를 판단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행하자.

부활의 진리가
불합리하다고 의심하지 말고
죽어야 사는 역설적 진리 속에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게 해야 한다.

2008년 부활 주일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개인과 가정, 민족과 국가가
다시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잘하엿도다! 서웅교회 성도들이여!

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이전의 중세교회가 그러했다. 오늘날도 간판은 대한예수교인대 예수 없는 교회가 있듯이 말씀이 없는 교회도 있다.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린 교회는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모를지기 잃어버린 울법책을 찾아야 한다.

평양 대 각성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을 외치면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말씀 없는 부흥은 교회를 도리어 어지럽힐 뿐이다. 하여 우리교회 성도 1,000 명이 1년 동안에 성경 1독 이상 하지는 소위 '성경일천두대장정' 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1,307명이 완독을 했고 15독을 한 이가 있는가 하면 필사를 한 분들도 있었다. 철없는 어린이도, 시력이 약해진 노약자도 해외나 군복무 중에 있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에 도전하며 성경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오만무례했던 어호아김 같은 이도 말씀을 읽었고, 임으로 말씀을 먹고 배에 집어넣은 예레미야 같은 이도, 그리고 말씀 읽을 땀이 흘러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요시아 같은 이도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지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은 우리를 거름나게 했고 기쁨, 교회, 국가, 사회를 변화시켰다.

주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성경을 읽는 이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비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가 기가 꺾박하던 예수를 메시야로 보았듯이 눈이 열리고 마음과 입이 열렸다. 말씀을 재발견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관원들의 합구령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어 부활을 증거 했듯이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

장하도다 서울교회 성도들이여, 잘하엿도다 서울교회가 주들이여.

주년을 기념하여 성경일천독을 목표로 정하고 유년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800 여 명이 신장을 하여 1,307명이 성경을 완독하는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연 100독을 하신 장로님이 작년에 15독을, 연 8번이나 필사한 관사님등, 출퇴근 차 안에서, 병상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훗날 지도에 붙은 가족사진을 보는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말씀들이 이번 기회에 심령굴수를 쫓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체 합들로 은혜의 감격 속에 더욱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반석 위에서 진리의 빛에 거하며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버쳐 열심히 총성봉 사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총성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날은 읽는 것이 힘들어서 성경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아빠랑 엄마랑 가족예배 드리며 다 함께 읽기도 했으며, 추석날과 설날에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대신 교회에서 성경사경회에 참석하여 일독을 마쳤습니다.

일독을 하는 중에 마음에 많이 느껴진 대목은 에스더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것을 보고, 저도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이여
나를 낳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동기권사(제1권사회)

말씀이 뱃줄로
푸르 살 돌아나고
남북에 더운피 도는
거룩한 대한민국이여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잡라진 허리의 시린 한반도

오래 식힌 눈물로 차오르는 두만강
백두산 우람한 봉우리에 무릎 꿇은 노승

무심한 칼바람 오간들 일러피는

더러는 파스한 햇살로 더러는 숨결 고운 바람 들어
성령으로 꽃 피우는 예배당 지을 날 언제인가

100년 전 조선의 심장 평양평

낮선 이방인 모질게 흘리고 간 흘씨 하나
속 비워 흠에 묻더니
조선팔도 복음의 숲 이뤄
면 나라 새떼들 별빛물고 나라 간다

어디까지 왔을까

새벽녘 십자 탑 붉은 행렬
그 피가 흐르는 기도의 대동맥 서울을 지나
강원도 등줄기 푸르게 뻗은 동해안으로

내자게 성난 파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며

섬섬옥수 빛어놓은 섬 조각들
너를 쪽빛바다 양지바른 곳 띄워놓고
발치에 돌아앉은 제주도에서
한반도 청정 자궁으로 낳은 우리땅 독도까지
푸르 바다 한끝 들어 허얇게 썩매더니
지구 동쪽 한반도 조용히 메달아 놓고

말씀으로 위대한 꿈을 꾸는 서울의 순례자들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



울릉도와 독도

윤이진(중동부)

김인석 권사(신촌 권사회)

서울교회가 세워진 이래 성경을 완독한 이에게 주
는 머그컵을 올해로 22개나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시
간이 그만큼 흐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이종윤 목사

하나님 앞에서 뜻 깊은 일을 하겠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성경일천독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어언 16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완독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이 일

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학업으로 미루어지다가 여름방학이 되어 성경통독카드를 받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장씩 읽으며 머리끝에 성경책을 두며 잠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늘 피로에 지친 제겐 성경구절 하나하나가 활력소처럼 힘을 북돋아 주

었습니다.

어느날 교회 5층에 거대한 한 반도 지도가 붙여졌습니다. 지도 위에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의 사진과 성함이 붙여진 것을 보며 분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즈음 중등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진 지도가 채워지는 것을 보며, 사진이 붙여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읽기 시작하여 겨울방학이 끝나갈 즈음 완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믿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907년 평양대 각성운동 100주년을 기하여 다시 부흥이라는 기치 하에 2007년 한 해 동안에 성경 1독 이상씩 하신 분의 사진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덮었다.

부흥회된 통일 조국 성취를 바라면서...



교회학교 선생님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던 내용을 내 눈으로 직접 읽고, 느끼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민음의 확신을 체험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으로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해야 할까

이상화 (고등부)

답게 받은 책을 나누어드리고 지금은 두 개의 책이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통독을 장려하여 이를 나중에 계수하여 보니 8회에 이르러 88세를 맞이하는 올해 더욱 감사하였습니다. 사립마다 다 각각 은혜 받는 것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 서울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를 이끄는 목사 되신 이종운 목사님이 너무도 귀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것을 생각할 때 받은 축복이 크고 귀합니다. 필박받는 목자를 위하여 교구별로 24시간 통곡의 기도를 드리며 모이면 울고 기도하던 우리 서울교회 말씀 따라 모여 이제는 목회자 세미나와 김치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며 한없이 축복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령의 삶의 가르치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십자가가 붙은 교회마다 축복이 넘치고 제가 두고 내려온 고향 이북 땅에도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저는 오늘도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만납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한 말씀 계속 읽어도 또 읽고 싶습니다.

계주도



한상준 집사 (제2 스테이션)

백두에서 한라까지.. 울릉도,독도 한반도를 1년동안 온통 꽃(사진)으로 장식한 지난 시간들..

평양부흥 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해가는 현대인의 패마른 심령에 다시금 성령의 기쁨을 채워, 회개와 쓰러져가는 영혼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 넣는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교회에서 실시한 성경1,000독 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성경 말씀을 보듯할 때 삶의 화려했던 하나하나의 오묘한 선

주님 부활을 감사하며

호스피스의 행복

박금실 성도(12교구)



잠들었던 나무 가지들과 얼었던 땅 위로 돌아나는 새싹들이 연초록 빛을 자랑하는 이 따스한 봄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늘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가장 크고 중심적인 상실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경험자로서, 담임 목사님이 천국환송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삽니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말기 환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또 아직 끝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 신은 있나요?’ ‘죽은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건강할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치중하다가 병이 들거나 죽음에 이르러서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게 하실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담으로 말미암는 죽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재림하심)

복음을 전하는 ‘나’는 여전히 어제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분들이 오히려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끝까지 성실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는 태어나는 아기의 병실과, 임종하는 이의 병실을 오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모습. 올 부활절에는 앙상하게 벗은 겨울나무 숲을 지나며 “웬지 이제는 저 나무들이 너무 정겹다”던 분이 떠오릅니다. 부활절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운 무덤

정애신 권사(1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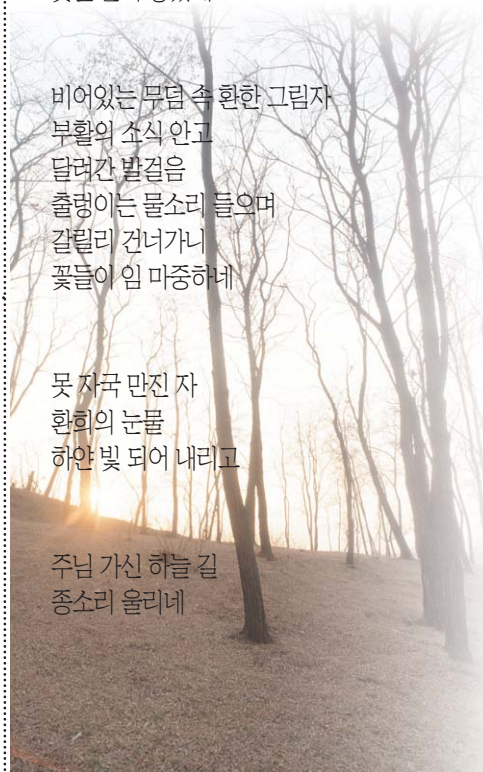
빛이 어두움을 가르고
돌 굴리는 소리
새벽을 흔드네

세마포 옷자락
벗어놓고 가신 길
봄이 누운 산자락에
피 빛 물든 발자국
꽃잎 깔아 놓았네

비어있는 무덤 속 환한 그림자
부활의 소식 안고
달려간 발걸음
출렁이는 물소리 들으며
갈릴리 건너가니
꽃잎이 입 마중하네

못 자국 만진 자
환희의 눈물
하얀빛 되어 내리고

주님 가신 하늘 길
종소리 울리네



십자가의 고난과 헌혈

황성일 (청년1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헌혈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 나도 참여를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혈압을 재고, 개인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했습니다.



헌혈차 안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헌혈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걸로는 멀쩡한데 속은 아닌가? 괜히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면 어찌지, 차라리 하지 말까? 헌혈기록카드를 내지 말고 그냥 가버릴까?’ 라는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 자신을 보면서, 소량의 피를 뽑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까지 쏟으셨던 그분의 고통은 과연 얼마나 크셨을까? 피검사를 마치고 피를 뽑기 위해서 팔을 견고 누웠을 때는, 마음이 웬

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많은 두려움들로 인해서 고민을 했는데, 막상 헌혈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참 평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고민하며 기도를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참 평강이 나의 마음에 흐르는 듯 합니다.

그전에 몇 번 헌혈을 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별 느낌이 없었지만, 이번 헌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다보니, 헌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헌혈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헌혈을 통해서 생명이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데반회 특강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4월4일(금)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제2 스테반회(회장: 김규태 집사)는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제14대 국회의원,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 특강시간을 갖는다.

특강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며 1, 2 스테반회원들은 물론 일반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예수 부활하셨다

주일 예배 - 성찬식 / 찬양예배 - 부활절 감사 음악예배

하나님은 죄인의 과수가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은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김영준 장로, 지휘 고성진 집사)가 '믿음의 반석 (ROCK of FAITH, 모시 리스러 곡, 주위재 역)'을 오자경 집사의 파이프 오르간 반주로 하나님과 성도들

께 들려드린다.

온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찬양예배로 드리도록 한다.

한편 교회학교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하는 달걀을 가지고 나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며 전도에 힘쓰도록 한다. 특히 중등부는 우리교회와 자매결연한 대치역에 나가 지하철 승객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힘써 전한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도로 맞이하는 부활주일 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사교육 · 연합기도회

25일(화) 오후 7:30 - 웨스트민스터 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완형 장로)는 교사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교사 교육 및 기도회를 3월 25일(화) 오후 7시30분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는다.

이날 강사로는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 목사가 선다. 각 부 교사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기다린다.

특 강

· 대학부 특강: 30일(주) 오후 3시30분 701호

대학부(부장: 권혁우 집사)는 김상철 장로(미래한국신문 발행인)를 강사로 모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리더쉽'을 주제로 강의의 듣는다.

애들이 교회 가자!

어린이 · 청소년 총동원 주일 - 5월4일(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는 주제 하에 5월4일(주)을 교회학교 어린이 · 청소년 총동원 주일로 선포하여 우리교회도 이에 동참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생명을 건 기도와,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먼저 교사가 영적으로 부흥하도록 하며 '어른은 아이 3명, 아이는 친구 3명'을 슬로건으로 범 교회적인 초청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다.

교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영상 매체 및 인쇄물을 통한 홍보를 하고, 교육국장 인도로 교사기도회를 진행하며, 교회 주변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단체(어린이 사회봉사단체, 중고등학교 특활반)를 초청하여 발표회 및 자매결연 등 연계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 청소년 총동원 주일까지 최선을 다해 전도하여 교회당이 새 생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칭찬 받으도록 기도한다.

계속되는 군 복음화의 불길

제60기 공군 신입생 환영 감사예배 · 3사단 진중 세례식 주관

우리교회를 통해 군복음화의 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교회는 간호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와 해군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를 주관한데 이어 제60기 공군사관학교 신입생 환영 감사예배와 3사단 진중세례식을 주관한다.

공군사관학교 신입생 환영 감사예배는 3월 26일(수) 오후 6시30분 공사교회에서 열리며 이종윤 목사는 '다섯 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히 13: 1~5)이

라는 제하의 설교를 한다. 예배 후에는 신입생들에게 선물증정과 환영만찬의 시간도 갖는다.

3사단 진중세례식은 3. 29(토) 오후 2시 3사단 신병교육대 십자군 교회에서 우리교회 후원으로 열린다.

이날 세례 받을 인원은 약 250명이다. 더욱 많은 국군장병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수) 공군사관학교 60기 입학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27일(목) 복음신앙동지회를 소집한다.

■ 승진: 이대중 집사(7교구) 기획재정부 과장

■ 국회의원 공천(한나라당): 3교구 이규민 집사(인천시 서구, 강화군 을), 11교구 여유현 집사(용인시 처인구), 14교구 공성진 성도(강남구 을)

■ 개업: 한충현 집사, 이윤정 권사(2교구) '오리엔탈 키친'(베트남 쌀국수와 태국 요리) 강남구 신사동 661-10 지하1층(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T. 070-7560-0160

■ 주간식당 봉사: 보보전도회(3.23) 마리아전도회(3.30)

■ 금주의 식사: 안흥희 집사 전화진 집사 가정(범사에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월4일 '애들이 교회 가자'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 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 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증거케 하소서.
- 4월9일 총선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들이 선택받도록

■ 교회오시는 길

